

에드워드 펠라의 해체주의적 디자인 경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Deconstruction Theory in the Design of Edward Fella

홍동식

동명정보대학교 정보조형학부

Hong, Dong-Sik

Tongmyong University of Information Technology School of Art and Design Department

• Key words: Deconstruction, Vernacular trends, Letters

1. 서론

제80회 The Art Directors Club Annual의 그래픽 디자인 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한 'Letters on America'는 디자인에서 해체주의 이론을 주창하며 제작된 Edward Fella의 작품이다. 이는 David Cason의 'The End of Print'와는 다른 성향의 해체주의(Deconstruction) 디자인 경향을 제시한다. 대부분의 디자이너들은 통상 해체주의 디자이너로는 David Cason과 Neville Brody로 생각하고 있으나, 1987년 캘리포니아 인스티튜트 오브 아트(California Institute of Art) 교수로서 상업적인 디자인 활동을 하지 않으며 자신의 관심을 좇아 작업하는 Edward Fella가 선두로서 해체주의 이론을 가지고 디자인 작업을 해 온 것은 생소하리라 생각한다. 그는 철저히 수작업을 고집하며 폰트그래퍼(Fontographer)라는 조합어를 상상도 하지 못할 시기에 그의 해체주의는 동서양으로 컴퓨터를 활용한 타이포그래피(computer-set typography)의 방향설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그의 작업과 디자인 성향을 통하여 그래픽 디자인에 있어서의 해체주의의 이론과 표현 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2. 해체주의의 이론적 배경

1988년 뉴욕 근대 미술관에서 전시된 '해체주의 건축'과 런던 데이트 갤러리에서 있었던 해체파 미술가의 세미나를 통해 처음 표명된 해체주의는 프랑스 작가 자크 데리다의 문학이론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는 우리에게 고정된 사고나 사회적 인식에 반하는 견해에 대해 동등한 중요성을 갖고 대하는 태도를 갖게 함으로서 미학에 대한 재정의의 요구하고 있다 해체주의의 특징은 분해되었다가 비논리적이거나 혼란스러운 방식으로 재조립되는 듯한 요소를 강조한다.

해체주의의 작품은 본질적으로 일반적인 아름다움과 대중적 공식에 맞추려는 모든 디자인에 대한 도전이다. 해체주의의 혼란스러운 방식은 일단 대중에게 인식되고, 비평의 주제가 되고 나면 비로소 생명을 얻게 되어 더 많은 관심과 더 넓은 수용을 부추긴다. 해체주의의 형태는 기존 모더니즘의 통합성이나 규범을 이탈하고 새로운 긴장감을 주는 형태를 추구하는 데 그 결과 파괴적이고 미완성적 표현이 되기도 한다.

디자인 요소들은 통일된 전체로 구성되는 대신 해체되고 전체에서 분리되어 대개 날카롭게 각지고, 중복되며 상호 침투하는 성격을 띤다. 디자인에 있어서의 해체주의를 살펴보면 건축, 패션 디자인, 산업 디자인, 광고, 그래픽 디자인 등에서도 두드러진 표현들이 나타난다. 건축가 프랭크 게리는 건물에 불완벽성과 주관성을 부여하였고, 장 폴 고티에의 안과 밖 또는 속옷과 겉옷의 구별이 없는 패션 디자인들이 등장 하였으며, 베네통과 같은 광고의 지시 대상인 상품적 메시지를 부재(不在)시키는 표현방식이 등장하게 되어 광고에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점을 가져오게 되었다. 해체이론을 디자인에 적용한 특징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정리된다.

[표 1] 그래픽디자인에 나타난 해체주의의 내적 의미

해체이론	디자인의 적용	디자인의 특징
탈현상	탈중심	디자인 원리의 해체, 그리드의 파괴, 수직과 수평의 거부
	전위	위치 전환을 통한 고정관념 해체
	탈구성	문자의 가독성저하, 전통 타이포그래피의 파괴
	무질서	형태, 색상, 크기 등의 미적 원리의 해체
역사성의 부정	과거와 현재의 분리	철저히 탈모더니즘의 범주에 포함
사이-텍스트(Inter-Text)의 형성	음성언어(Logos)의 대두	전통 타이포그래피의 부정 시간성, 목적성의 혼재

2-1. 디지털 시대의 디자인과 해체주의의 등장

문학과 건축 디자인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해체주의가 디지털의 등장과 함께 모더니즘을 승배하는 디자이너의 탄생을 뒤로 한 채 혁신적인 빠른 속도로 진부함의 대열에 끼어 들게 되었다. 전통적인 활판을 사용한 타입 세팅에서 벗어나 컴퓨터라는 통합도구로 디자이너들은 모든 작업을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 해 보면서 진행 할 수 있게 되었다. 디자이너들의 마음에 들 때까지 실험을 해볼 수 있게 되었고 그 동안 존재해 왔던 타이포그래피의 여러 가지 관례를 파괴했으며 디자인의 신성 불가침의 도구인 그리드(grid)의 존재 이유도 부정하게 되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그리고 네덜란드 등에서 이러한 이론을 충족하는 디자인 작품들이 등장하게 되며 특히 디지털 타입의 실험성을 주창하며 나타난 에미그레 그래픽스(Emigre Graphics)사의 등장은 디자이너의 잠재적 가치를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3. Edward Fella의 등장과 "Letters on America"

Edward Fella는 전혀 상업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 미국 디자이너로 널리 알려져 있다. 현재 그는 캘리포니아 인스티튜트 오브 아트(California Institute of Art)에서 그래픽 디자인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며 디자이너를 위한 디자인을 하고 있다.

그는 30년간 디트로이트(Detroit)에 있는 광고 대행사에서 상업 디자이너로 활동하다가 48세의 나이로 크랜브룩 아카데미 오브 아트(Cranbrook Academy of Art)에 대학원 과정을 입학해 캐서린 맥코이(Katherine McCoy) 부부와 뉴 바우하우스로부터 온 강사들에게 교육받으며 실험적인 디자인 표현 방법과 능숙한 것에 반(反)하는 서투른 디자인으로 다른 디자이너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후 칼아트에 교수로 재직하며 디자인에 있어서의 해체주의적 방법, 즉 뒤집기, 과장된 크기, 불규칙한 글자들의 자간, 자르기 등의 실험작업과 예술과 디자인의 '제품 활용 방식'의 크랜브룩 원형을 제공하게 되었다. Edward Fella는 바우하우스(Bauhaus)에 영향을 받아 디자인

의 모더니즘과 실용주의 정신에 입각한 작업과, 예술과 디자인 실무의 결합을 이상적으로 여기도록 노력했다. 그의 진짜 예술은 회화성의 추구였다. 예술이 70년대 비(非)물질화 되며 그는 주변 예술과 타이포그래피를 중심으로 한 색다르며 풍토적인 경향이 강한 다양한 작업들이 나타났다. 그의 독특한 출판 작업으로 1997년에는 Chrysler Award를 수상하며 디트로이트의 CCS에서 명예 박사를 수상하며 그의 작품들은 뉴욕 국제 미술관에 연구 소장되어 있다.

Edward Fella는 디자이너로서 좀더 예술 영역에 가까이 다가서기 위해 1974년 자신의 작업실에서 직접 제작한 일러스트레이션과 복사 사진 시스템을 활용하여 자연적 심상과 타입으로 즉석에서 작성한 콜라주를 책으로 제작하기도 했다. 그 후 26년 뒤 준비된 타이포그래피의 이미지 사진과 본인의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구성된 'Letters on America'가 출판되었다.

이는 본인의 첫 공식 출판집이 되며 본문은 David Cason의 'The End Of Print'의 공동편집자인 Lewis Blackwell과, 같은 학교(California Institute of Art) 교수이며 현대 디자인 이론의 거장이며 디자인 저서 출판가인 Lorraine Wild의 격조 높은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 십 년간 수집한 1,187개의 방대한 풍토적인 사진 이미지들과 1,212개의 본인이 직접 그린 이미지들로 구성되어 있다.

Edward Fella는 이 책을 통하여 질서, 균형, 연속성 등의 개념에 도전하고 역설적인 전통을 받아들여 그 개념들을 방해하고, 왜곡하며, 혼란스럽게 함으로 주변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시각요소의 부각을 강조했다.

4. Edward Fella의 풍토적 디자인 경향

'Letters on America'의 서두에 Lewis Blackwell은 아래와 같이 서술하여 Edward Fella의 예술성을 극찬하였다. "Edward Fella는 48세에 디자인 대학원(Cranbrook Academy of Art)을 졸업하여 디자인에 있어서 해체주의적 이론에 입각하여 그의 능력을 심분 발휘한 선구자이며 디자인 교육자로 평평이 나있다. 풍토적인 경향과 반(反)유미주의적 성향을 띄는 레터링과 이 책을 위해 특별히 발취한 사진들의 병렬은 디자인에 있어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게 되었다."

제80회 The Art Directors Club Annual의 그래픽 디자인 부문에서 'Letters on America'가 금상을 수상하게 된 것은 디자이너들에게 큰 메시지를 전달한다. 디지털 환경의 변화에 따라 도전과 혁신에 의해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 현대 타이포그래피의 성향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그는 작업에 있어서 가장 해체주의적 요소를 활용하여 제작하고 있지만 철저한 수작업과 단순한 복사기를 사용하여 그의 디자인을 접합시킨다. 이로써 그래픽 디자인은 더욱 국지화되고, 절충화되고, 세대화되고, 방언화되고, 다문화로 갈라지며, 반유미화되며, 전혀 부동적이지 않은 요소들로 구성됨을 암시하게 되었다.

'Letters on America'가 출판되기 이전의 작품들 캘리포니아 인스티튜트 오브 아트(California Institute of Art)의 광고 포스터와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디자인 협회 AIGA의 강의 광고 포스터들도 풍토적인 디자인 경향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 그의 작품에서 풍토적 디자인 경향과 해체주의적 요소를 쉽게 살펴볼 수 있다. 주위에서 볼 수 있는 그런지(Grungy) 스타일의 폴라로이드 사진들과 그의 일러스트레이션들 즉 독특한 레터폼, 동물, 얼굴, 기하학적 형태, 얼룩, 추상적인 만화

등 설명할 수 없는 선과 기타의 것들로 난무하는 무질서의 요소들이 항상 등장한다. 이로써 예의 바른 타이포그래피나 디자이너들이 지키고 있는 모든 규칙을 남김 없이 무시한 포스터와 전단을 디자인한다. 그것을 보는 사람은 아마도 그것을 읽어서는 안될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며 철저히 디자인의 구석 구석을 음미하며 읽게 만드는 매력을 가졌다. 좀 더 가까이 다가서 보면 Edward Fella의 타입은 마치 부러진 펜으로 쓴 듯이 갈라지며 늘어지며, 잘리고 부수어진 모습으로 그려지고 아무런 생각과 규칙 없이 배열된 모습이다. 그는 자신이 만드는 작품들이 전시회의 주인공들인 화가나 조각가와 똑같이 창조적 자유를 누리는 예술가이자 혁명가적인 타이포그래피의 가장 극단적인 예를 보여 준다. 이는 일반적인 아름다움과 대중적 공식에 맞추려는 모든 디자인에 대한 도전을 암시한다. 자크 데리다의 해체주의가 시작된 프랑스의 철학과 문학의 이론으로 끌어내어 원문을 분석하는 방법과 마찬가지로 조작에 의한 비주얼 언어와 디자인 속에 구체화되어 있는 여러층의 의미들을 해체하거나 분리, 노출시키는 방법 중의 하나로서 새로운 풍토적 속성을 보이게 된다.

5. 결론

Edward Fella는 'Letters on America'를 통하여 새로운 시각적 표현과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추구하기 위해 철저한 실험성을 바탕으로 능숙한 것에 반(反)하는 서투른 디자인의 선구자가 되었다. 그는 교육자로서 디자인의 첫 번째 요소를 클라이언트의 만족이 아니라 본인의 미적 만족감으로 하며 디자인의 질서, 레이아웃의 균형, 미적 조화 등의 개념에 도전하며 철저히 실험이라는 교육을 하고 있다. 이는 바우하우스를 통한 디자인 교육과 그의 스승인 캐서린 맥코이(Katherine McCoy)와의 운명적인 만남과 캘리포니아 인스티튜트 오브 아트(California Institute of Art)로 흐르는 하나의 디자인 맥락을 형성하게 된다. 이로써 그의 활동은 디자인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며 60년대 이후 뉴 웨이브 타이포그래피를 개척한 바젤 디자인 학교의 교수인 볼프강 바인가르트(Wolfgang Weingart)에 비견되어 Edward Fella는 칼아트의 교수와 후기 모더니스트 보다 강한 탈 모더니스트로 많은 디자이너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



[그림 1] Letters on America



[그림 2] Fella의 스케치북과 포스터

참고문헌

- 김민수, 모던디자인 비평, 안그래픽스, 1994
- 원유홍, 타이포그래피의 풍토적 경향에 관한 연구, 디자인학연구, 제42호, Vol 14, 2001.5
- Cathy Fishel '모더니즘으로의 회귀-미국 타이포그래피의 디자인의 동향, 월간 디자인 넷 1998.10, p45-59
- Steven Heller, 김은영 역, 왜 디자이너는 생각하지 못하는가? I, 도서출판 정글, 1997
- Steven Heller, 장승원 역, 왜 디자이너는 생각하지 못하는가? II, 도서출판 정글, 1998
- Edward Fella, Letters on America, London, Laurence King, 2000
- <http://www.calarts.edu>